

2025.02.18.(화) 증권사리포트

심텍

턴어라운드 기대 요인에 주목

[출처] 키움증권 김소원 애널리스트

4Q24 영업적자 387억원. 컨센서스 부합 예상

4Q24 매출액 2,785억원(-14%QoQ, -6%YoY), 영업적자 387억원(적전 QoQ, 적지 YoY)으로, 시장 기대치(-402억원)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사 가동률 하락과 제품 Mix 악화로, 영업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트 수요 부진에 따른 고객사 재고조정 영향이 지속되며, 신규 수주가 감소한 탓이다. 4Q24 가동률은 모듈 PCB 약 80%(-5%P QoQ), Substrate 약 60%(-10%P QoQ)를 예상한다. Substrate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제품 Mix 악화가 전망된다. 제품별 매출액은 모듈 PCB 731억원(-10% QoQ), Substrate 2,016억원(14% QoQ)을 예상한다.

중국 IT세트 수요 반등에 따른 수혜 기대

2025년 실적은 상저하고 패턴을 전망한다. 고객사 재고조정 영향으로 1H25까지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1월까지 부진했던 수주 탓에, 1Q25 매출액 2,838억원(+2%QoQ, -3%YoY), 영업적자 268억원(적자지속)의 부진한 실적을 전망한다. 수주와 매출액은 2Q25부터 점진적인 반등을 기대한다.

2025년 매출액 1조 2,720억원(+5%YoY), 영업이익 27억원(흑자전환)을 전망한다(컨센서스 213억원). 과거 전망치에 비하면 부진한 실적이나,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 보조금 정책에 따른 스마트폰/IT 세트 수요 반등이 고객사 메모리 재고 소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동사의 실적 개선 시점을 예상보다 앞당길 전망이다. 전사 매출액 중 중국 IT세트(스마트폰, PC 등)향 비중은 10~15%로 추정되어, 중국 IT세트 수요 반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1H25 주가 반등 지속 전망

동사 주가는 2023~2024년 2개년 연속 적자를 반영하며 12개월 선행 P/B 0.8배까지 하락한 이후, 1.1배 수준까지 반등하였다. 1H25에는 중국 스마트폰 수요 기대감이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한다.

현재 서버향 제품 수요는 비교적 견조한 가운데, 2H25에는 PC 수요 반등 역시 기대된다. 또한 CXL, GDDR7, 시스템IC향 기판과 같은 신제품 대응과 적용처/고객사 다변화 성과들도 올해부터 확인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실적 추정치 조정에 따라 23,000원으로 하향한다.

투자지표

(십억 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E	2025E
매출액	1,697.5	1,041.9	1,208.8	1,272.0
영업이익	352.4	-88.1	-49.5	2.7
EBITDA	434.3	-7.5	31.5	83.9
세전이익	346.3	-144.7	-43.3	-10.1
순이익	246.1	-115.1	-33.7	-7.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45.8	-114.9	-33.7	-7.9
EPS(원)	7,717	-3,606	-1,057	-247
증감률(% YoY)	113.4	적전	적지	적지
PER(배)	3.4	N/A	N/A	N/A
PBR(배)	1.38	2.62	0.80	1.06
EV/EBITDA(배)	1.7	N/A	26.6	11.9
영업이익률(%)	20.8	-8.5	-4.1	0.2
ROE(%)	49.7	-21.3	-7.4	-1.8
순차입금비율(%)	-16.7	42.4	109.4	128.2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증권

견조한 펀더멘탈에 단기 모멘텀도 기대

[출처] 키움증권 안영준 애널리스트

연간 순이익 64% (YoY) 증가한 8,990억원

2024년 4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한 1,477억원으로 컨센서스 7% 하회, 추정치에는 부합했다. 전년동기 대규모 총당금 적립으로 인해 기저가 낮았던 가운데(4Q23 순이익 -72억원) 비용 반영이 축소되면서 수익성 회복에 성공했다. 연간 순이익은 64% (YoY) 증가한 8,990억원을 기록했으며, ROE는 전년대비 4.4%p 상승한 12.9%를 기록했다.

전 부문 견조한 실적, 총당금 대폭 축소

삼성증권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손익은 48% (YoY) 증가했는데, 수탁수수료 기준 국내(코스피+코스닥)는 2% (YoY) 감소한 반면 해외(외화증권)는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181% (YoY) 증가했다. 주식 수탁수수료 중 해외주식의 비중은 52% (+25%p YoY)를 기록했다. IB 수수료수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이자손익은 차입부채 증가 등으로 10% (YoY) 감소했다. 운용 및 기타 손익은 전년동기대비(vs. 4Q23 -1,413억원) 흑자전환한 883억원을 기록했는데, 일회성 비용으로는 부동산 관련 총당금 등 약 350억원 반영되어 전년동기대비(vs. 4Q23 총당금 약 1,800억원)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실적 안정성 + 높은 배당수익률 + 단기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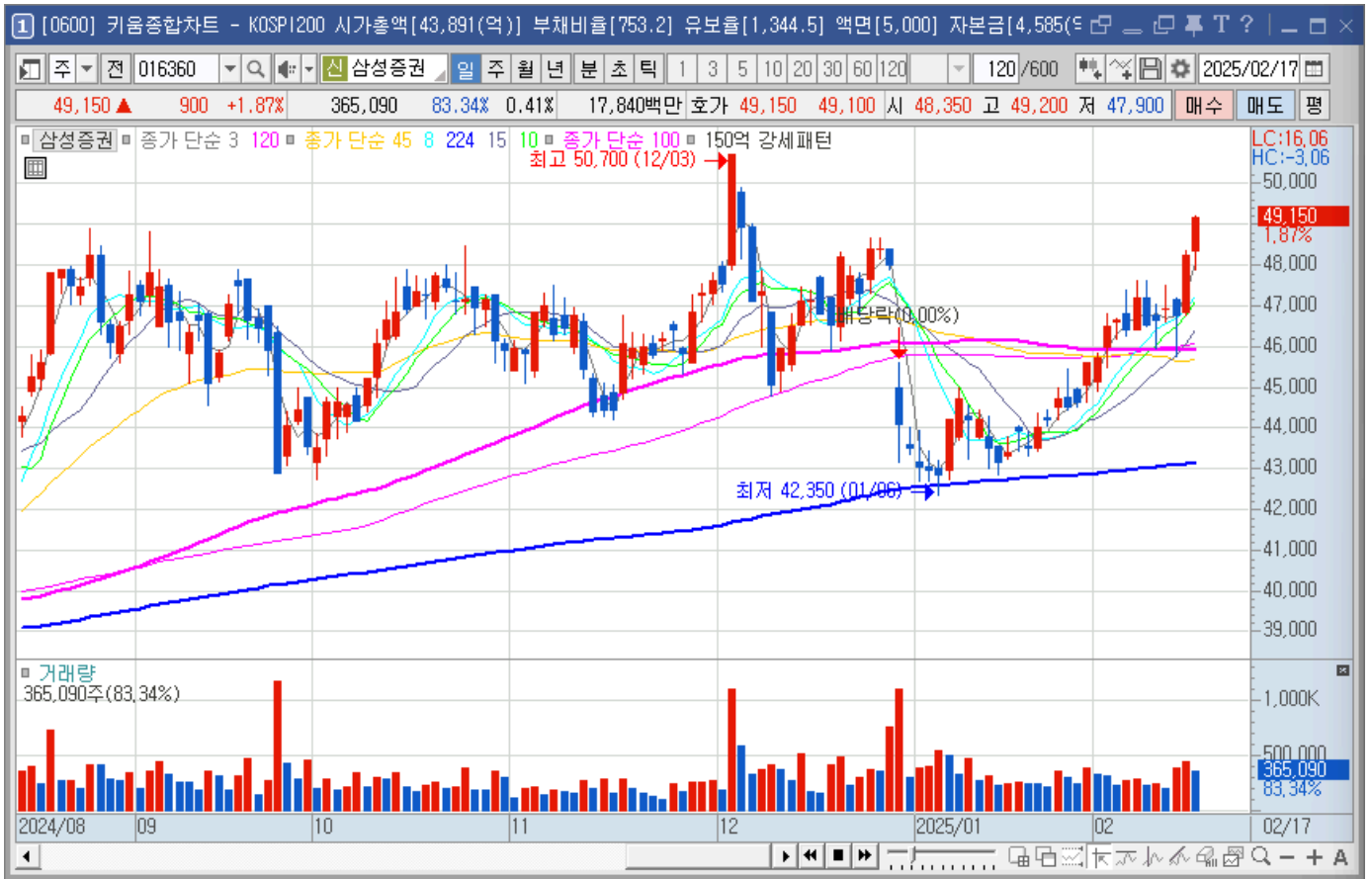
삼성증권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0,000원을 유지한다. 리스크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 중이며, 연간 실적(8,990억원)은 역대 최대였던 2021년(순이익 9,653억원)에 거의 근접하는 등 업종 내 최고 수준의 실적 회복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35%의 주주환원성향을 중장기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계열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의 해당 기

대감이 유지될 경우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안정성도 높고 기대배당수익률은 업종 최고 수준인 7%대이며 단기 모멘텀도 있다. 업종 내 차 선호주로 유지한다.

(십억원, 배)	2022	2023	2024E	2025E
순영업수익	1,292.1	1,511.1	2,065.9	2,205.4
이자이익	522.4	661.9	1,105.5	1,250.5
비이자이익	514.8	658.0	1,105.0	1,247.7
영업이익	422.4	547.4	899.0	971.4
연결순이익	422.4	548.0	899.0	971.4
ROE (%)	6.9	8.5	12.9	12.9
ROA (%)	0.7	1.0	1.5	1.5
EPS	4,730	6,130	10,068	10,878
BPS	69,383	74,159	82,018	86,477
PER	5.0	5.1	4.4	4.4
PBR	0.4	0.5	0.5	0.6
DPS	1,700	2,200	3,500	4,000
배당수익률 (%)	5.4	5.7	7.3	8.3





노머스

계획대로 진행 중, 이어질 고성장

[출처] DS투자증권 조대형 애널리스트

4Q24 Review: 탑라인 고성장세에 주목

24P 매출액 689억원(+62.9% YoY), 영업이익 81억원(흑전 YoY)을 달성하며 큰 폭의 턴어라운드 시현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당사 추정치와 상장 시 제시했던 가이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식 보상비용 및 상장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주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상장 종목들에서 연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임을 감안하면 단기 수익성보다는 기대치에 부합한 탑라인 성장세에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4Q24 국내 공연의 비중이 높아지며 원가율이 상승한 점도 일부 영향이 있었으나 25년도 전 사업부의 매출 고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이어지며 상쇄될 것으로 기대한다.

숫자 및 추가 IP 확보로 증명 중인 사업간 시너지

11월 더보이즈 입점에 따라 Fromm 구독자 수는 30만명 수준으로 레벨업 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인 구독자 확보를 위해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11월 공시를 통해 선급금 지급을 통한 사업 협업 등 IP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해외 투어 및 플랫폼 그리고 MD와 콘텐츠 제작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솔루션 제공으로 사업구조간 시너지가 가능한 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판단이다. 특정 기획사에 편향되지 않은 동사의 플랫폼은 중소형 아티스트 IP를 확보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된다.

여전한 저평가 구간

25년은 현재까지 확보한 3분기까지의 해외 투어 파이프라인으로도 실적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5F 매출액 1,097억원(+59.1% YoY), 영업이익 282억원(+247.1% YoY)을 전망한다. 다소 공격적인 추정치로 보일 수 있으나 1) 4분기 공연 파이프라인도 추가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 추가 공연 및 아티스트 입점에 따른 커버스와 플랫폼 매출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기

에 달성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3분기까지 확보된 공연으로도 영업이익 220억원 수준은 가시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보수적인 추정에 기반해도 PER 11배 수준의 현재 주가는 여전한 저평가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0	0	9	18	42
영업이익	0	0	-4	-10	0
영업이익률(%)			-43.6	-57.1	-0.5
세전이익	0	0	-22	-16	-2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0	0	-21	-11	-31
EPS(원)	0	0	-5,167	-2,677	-3,333
증감률(%)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ROE(%)	n/a	n/a	n/a	39.5	n/a
PER(배)	n/a	n/a	n/a	n/a	n/a
PBR(배)	n/a	n/a	n/a	n/a	n/a
EV/EBITDA(배)	n/a	n/a	-7.5	-4.5	-25.7

자료: 노머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디케이티

4Q24 Review : On-Device AI 수혜 지속 중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호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5,000원 유지

디케이티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5,000원을 유지한다. On-Device AI 스마트 기기 지속 출시에 따라 동사의 주력 제품인 FPCA 실장 부품수 증가 등으로 ASP가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배터리 소비 전력, 수명, 발열 예방에 필요한 스마트폰 보호회로 PCM 역시 고객사 Spec 상향 요구로 상위 호환 S-PCM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폴더블 모델에 본격 탑재될 전망이다. 타사의 주력 제품

M/S를 동사가 올해부터 확보하는 상황에서 타사의 시장 컨센서스 기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267억원, 시가총액은 2,700억원을 상회한다. 동사는 2024년 창립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실적 경신을 이어갈 전망이다. 히스토리컬 Mid-Cycle P/E 20배 이상 받아왔으며, 고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2025년 예상 P/E 5배 수준이다. 매우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한다.

4Q24 Review: 모든 사업 부문 고른 성장

디케이티의 4Q24 실적은 매출액 982억원(+44.2%, YoY), 영업이익 28억원(-11.6%, YoY)을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는 매출액 4,033억원(+44.0%, YoY), 영업이익 231억원(+57.3%, YoY)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 4Q24 실적을 살펴보면 1)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OLED 부문은 고객사 내 올해 신규 모델인 갤럭시S25 양산 대응에 따라 575억원(+8.5%, YoY)을 기록했으며, 2) 배터리에 탑재되는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경우 On-Device 스마트폰 전환에 따른 고객사 내 Spec 상향 요구로 ASP가 상승하면서 140억원(+48.9%, YoY)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신규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3) ESS용 BMS는 국내 대표 셀메이커향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3Q24 6억원 □ 4Q24 20억원을 기록했으며, 4)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WPC(Wireless Phone Charger)는 150억원(+400.0%, YoY)을 기록했고, 5) P-LBM(Parking-Lithium Battery Module)은 3Q24 10억원 □ 4Q24 7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양산이 본격화되는 PCM의 상위 호환인 S-PCM 생산 라인 세팅 비용이 일회성(약 20억원)으로 반영되면서 OPM은 2.9%(-1.8%p, YoY)을 기록했다.

2025년 매출액 5,050억원, 영업이익 309억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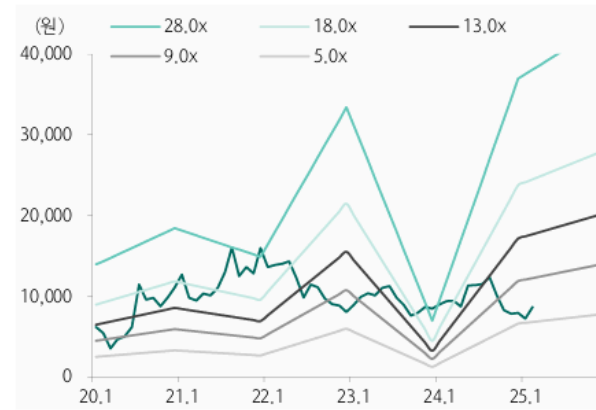
디케이티의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5,050억원(+25.2%, YoY), 영업이익 309억원(+33.8%,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On-Device AI 스마트폰 지속 출시에 따라 제품 Spec은 상향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ASP 상승으로 지속 수혜를 볼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그간 폴더블 모델에는 탑재되지 않았던 S-PCM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평균 단가가 기존 PCM 대비 약 10~20% 높으며, 폴더블 모델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등 적용 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SS용 BMS는 국내 셀메이커 3社 전부 대응 중으로 2024년 26억원 □ 2025년 13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전장쪽 성장 역시 두드러질 전망이다. WPC의 경우 고객사 내 점유율이 2024년 말 기준 약 20%에서 1Q25 약 30%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연말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P-LBM은 최근 현기차 SQ인증을 획득했으며, 2024년 82억원 □ 2025년 44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북미 IT 기업향 FPCA 실적도 2H25부터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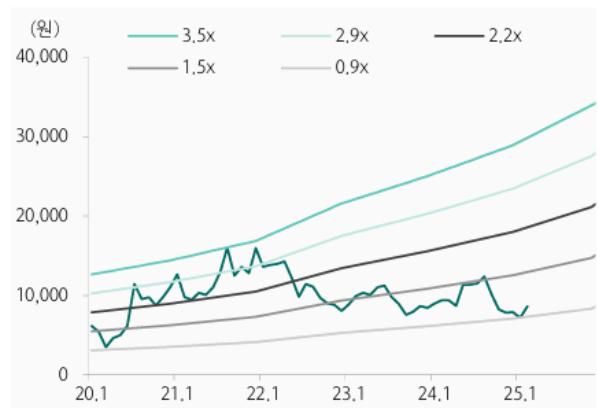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363.5	280.2	403.3	505.0
영업이익	21.2	14.7	23.1	30.9
세전이익	25.3	8.9	33.6	44.6
순이익	19.6	4.4	26.6	24.7
EPS	1,193	248	1,283	1,574
증감율	124.67	(79.21)	417.34	22.68
PER	6.74	33.99	6.17	5.48
PBR	1.31	1.19	0.92	0.85
EV/EBITDA	4.50	7.19	4.50	3.74
ROE	21.87	3.75	16.40	16.76
BPS	6,123	7,094	8,603	10,177
DPS	0	0	0	0

도표 2. 디케이티 12M Forward PER Band



자료: Quantivise, 하나증권

도표 3. 디케이티 12M Forward PBR Band



자료: Quantivise, 하나증권



휴메딕스

2025년 필러 해외 진출 스케줄이 많다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2024년 4분기 실적, 매출은 소폭 하회 영업이익은 예상 수준

2024년 4분기 매출액이 367억원(YoY +2.1%), 영업이익은 101억원(YoY +93.0%)이다. 당리서치에 매출은 소폭 못 미쳤으나 영업이익은 예상수준이었다. 영업이익이 회복한 것은 마진 좋은 필러(엘라비에)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2025년 영업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2025년 2분기 태국, 하반기에는 베트남, 브라질 바디필러 시장 진출

전사 사업부별 최근 동향과 전망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러 수출이 고 성장 중이다. 2024년 4분기에 전체 필러(엘라비에, 리볼라인) 매출은 138억원(YoY +10.0%)으로 증가했다(표1). 특히 필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83.3% 증가한 110억원을 기록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향 수출이 2023년 연간 80억원에서 2024년 16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 했다. 이로 인해 2024년 필러 수출은 전년보다 45.7% 증가한 370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브라질에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바디필러 품목 승인을 받아 전체 브라질 필러 수출이 200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또한 2분기에 태국에 엘라비에와 리볼라인을 출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베트남에 엘라비에를 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5년에는 필러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사 매출을 견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둘째, 4분기 전문의약품(수탁)은 78억원(YoY +8.3%)으로 성장 중이다. 2023년에 증설된 바이알/주사제 공장 효과가 2024년 4분기에도 계속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복합필러 벨피엔은 그동안 출시가 많이 늦어졌다. 드디어 2025년 상반기에 임상을 마치고 하반기에 식약처에 품목허가와 승인을 받아서 2026년 하반기쯤에 출시할 전망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123	26	21	2,109	13.1	6.5	2.0	16.0	1.8
2023	152	37	25	2,210	15.3	6.2	1.9	14.7	1.6
2024E	162	43	38	3,694	9.4	5.7	2.1	19.9	1.6
2025E	175	50	41	3,987	8.7	4.5	1.7	20.2	1.7
2026E	200	56	47	4,484	7.7	3.5	1.5	19.1	1.7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포 사격준비 끝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용 애널리스트

4Q24 Review: 놀라움x3

4Q24 연결 매출액은 4.8조원(+56.0% YoY, +83.6% QoQ), 영업이익은 8,925억원(+222.1% YoY, OPM 18.5%)으로 3개 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지상방산과 한화시스템이 계속해서 성장을 견인했다. 지상방산 부문은 매출액 3.4조원(+74.5% YoY), 영업이익 8,698억원(+172.0% YoY, OPM 25.9%)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국내는 양산사업 물량이 집중됐고, 해외는 폴란드향 K9 40문, 천무 12대를 인식하며 수출 비중은 55.0%를 차지해 이익 성장을 견인했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액 5,952억원(+38.9% YoY), 영업이익 -460억원(적지 YoY)이다. 물량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GTF 엔진 판매 증가(4Q 264대)로 RSP 영업손실 증가했다. 한화시스템은 매출액 9,335억원(+19.4% YoY), 영업이익 291억원(+60.4% YoY, OPM 3.1%)을 기록했다.

가보지 않았으나 자신 있는 길

25년 매출액은 25.1조원(+123.1% YoY), 영업이익 2.7조원(+56.3% YoY, OPM 10.7%)으로 전망한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의 필리 조선소 연결 편입이 반영됐다. 동사는 25년 지상방산 매출액을 +20% YoY로 제시했다. 국내 양산 사업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25년 폴란드향 K9 70문 이상, 천무 50대 이상이 인도되고 호주와 이집트 K9 공급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외 수출의 높은 수익성을 감안할 때 25년에도 24년과 유사한 마진율을 유지할 것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2만원으로 상향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00,000원에서 620,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Target PER(Peer그룹 평균) 20.7x에 12M EPS fwd 30,023원을 적용해 산출했다. 22조원에 달하는 해외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지상방산의 견조한 실적이 당분간 지속되고 한화오션 및 한화시스템(Philly Shipyard)과의 해양사업에서의 시너지를 감안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4Q24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4,831	56.0	83.6	3,640	32.7
영업이익	892	222.1	87.0	531	68.1
세전계속사업이익	2,122	863.4	465.6	520	317.9
지배순이익	1,831	1,039.6	456.1	357	418.4
영업이익률 (%)	18.5	+10.5 %pt	+0.0 %pt	14.6	+3.9 %pt
지배순이익률 (%)	37.9	+32.7 %pt	+25.4 %pt	9.8	+28.5 %pt

자료: 유안타증권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7,060	9,359	11,246	25,118
영업이익	400	691	1,725	2,696
지배순이익	195	818	2,295	1,328
PER	15.3	6.7	7.0	17.7
PBR	1.0	1.6	2.6	3.4
EV/EBITDA	6.9	8.7	8.0	8.0
ROE	6.8	25.6	49.6	20.9

자료: 유안타증권



하나기술

Only 2차전지? No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부진했던 2024 VS. 실적개선 기대 2025

2024년은 2차전지 업황 부진에 따른 수주 공급일정 지연과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5년에는 실적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는 지연 수주가 올해는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에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매출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공급망 확대를 통한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이익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받을 수 있는 신사업

2차전지와 관련된 신사업은 Z-Stacking과 WIP(Warm Isostatic Press)이다. Z-Stacking 장비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고체 시장 확대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였다. Z-Stacking 장비는 4년간의 R&D를 통해 해외(유럽)기업으로부터 수주를 획득, 초도 양산장비 공급이 시작되었다. 연내 추가 납품 관련 계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쟁사와의 차별점은 SK C&C와의 스마트 머신 공동개발(24.05.28) 체결을 통해 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예측기반 정비솔루션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산 및 문제점/오류 발생시 조기 대처 목적으로 도입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된다. 스택킹 공정을 시작으로 추후 적용공정이 확대될 것이다. WIP는 고압수를 사용하여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압력을 전달하는 장비로 전고체 전지 제작시 고체 전해질의 계면 특성향상을 위해 Press 공정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UTG Heat Chamfering(열면취)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팽창과 수축 원리를 이용하여 Glass Edge의 Chipping을 제거하고 Glass의 견고성을 강화 및 유지하는 장비이다. Edge Grinder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판단된다. 이 장비의 장점은 기존 폴리싱과 식각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적용하지 않아 독성물질의 사용 및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이 없다는 점이다. 환경오염 여부가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장비이다. 독일 OLED 전문기업으로부터 수주를 취득, 장비를 제작 중이다. 현재 레퍼런스를 구축 중이며, 유리기판이 적용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확장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장비라고 판단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880	1,130	1,139	1,199
영업이익	-45	-50	112	-63
지배순이익	-305	-29	15	-38
PER	-6.6	-157.1	305.0	-164.9
PBR	5.3	6.5	6.2	5.7
EV/EBITDA	-96.8	-141.7	39.7	-254.1
ROE	-87.4	-4.7	2.1	-4.1

자료: 유안타증권

